월요광장

분노, 그 용기와 폭력의 위험한 경계

심 옥 숙
인문지행 대표

"노래하소서, 여신이여!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분노에 관한 시구로 시작한다. 최고의 영웅들을 통해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루는 '일리아스'는 아킬레우스의 '분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으로 그리스 연합군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장군이지만 전투에 나가지 않는다. 총사령관 아가멤논에 대한 분노 때문이다. 아가멤논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아킬레우스는 거침없이 비판하는데 아가멤논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모욕적이고 부당한 언사뿐이다.

게다가 아가멤논은 아킬레우스가 소유하고 있는 소녀를 강탈함으로써 아킬레우스를 굴복시키고자 한다. 이 소녀를 빼앗는 이유는 아킬레우스의 명예를 짓밟고 웃음거리로 만들겠다는 것에 있다. 아가멤논의 의도는 소녀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 과시와 부당함에 대해서 아킬레우스가 거침없이 비판은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자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런 속셈을 잘 알기 때문에 아킬레우스는 더더욱 분노한다. 뛰어난 영웅이자 한 개인의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음으로써 아가멤논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아킬레우스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다. 이 부당함 앞에서 아킬레우스는 자신을 "아무런 명예도 없는 재류외인(在留外人)인 양" 취급하는 것 때문에 분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아킬레우스의 거센 분노는 차라리 적이 승리해서 그리스가 고통을 겪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다. 이 모습에서 분노가 얼마나 강하게 아킬레우스를 지배하는가를 볼 수 있다. 그는 '백성들의 목자'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분노의 소용돌이에 빠진 아킬레우스에게는 백성들의 생명은 안중에 없다. 오직 자신의 분노를 삭이는 것이 최우선이다. 지금 그는 용기보다는 분노에 사로잡힌 '분노의 포로'일 뿐이다.

아킬레우스의 격렬하고 맹목적인 분노는 감당할 수 없는 비극을 불러온다. 목숨처럼 사랑하는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에게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다. 아킬레우스가 싸움을 거부하면서 그리스군이 연일 패하고 죽어 나가자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갑옷과 무기로 무장하고 싸우다가 헥토르의 손에 죽는다. 이 소식을 듣고 아킬레우스는 "당장이라도 죽고 싶어요!"라고 외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책임이 자신에게 있기에 아킬레우스는 절망에 가까운 분노에 휩싸인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 분노는 오히려 아킬레우스를 차분하게 만든다. 이제 파트로클로스의 죽음을 통해서 이전의 격렬한 분노로부터 빠져나와서 분노를 객관화한다. 그리고 "분노란 똑똑 떨어지는 물보다 더 달콤해서 인간들의 가슴속에서 연기처럼 커지는 법이지요. 꼭 그처럼 저는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에게 분노했지요"라고 고백한다. 아킬레우스는 분노의 속성과 힘을 깨닫고 스스로가 분노의 폭력을 휘둘렀음을 고백하지만 깨달음만으로 분노의 감정은 해소되지는 않는다.

결국, 아킬레우스는 지금까지 분노 때문에 거부했던 전장에 분노 때문에 나간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오직 복수를 생각한다. 헥토르에게 분노의 화신이 된 아킬레우스는 대적할 수 없는 상대다. 이 지점에서 아킬레우스에게 분노와 복수심이 하나가 되어서 나타난다. 분노라는 맹목적인 폭력에 도취한 아킬레우스의 모습은 헥토르의 시신에 반복적으로 가하는 무의미한 모욕에서 잘 나타난다. 가할 수 있는 모든 폭력을 동원해서 복수를 행한 후에도 아킬레우스의 마음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하고 할 일을 다 한 사람의 평화는 찾아오지 않는다. 분노는 상처에서 생기고 상처는 복수를 통해서는 치유되지 않기 때문이다. 복수가 폭력적일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슬픔이 쌓인다.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온 헥토르의 아버지와 함께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야 비로소 해소되기 시작한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분노와 고통·슬픔을 나눔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인간의 한계를 다시 확인한다.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분노로 인한 고통을 깨닫게 되면서 비로소 성장하는 힘이 된다. 부당한 일에 대한 분노는 용기지만 용기는 언제든지 폭력으로 변할 수 있다. 분노에서 용기와 폭력을 혼동하면, 분노는 한 순간에 야만의 악순환에 빠져든다. 이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를 용기를 내게 하는 원천이라고 말한다.

"분노는 필요한 것이다. 영혼을 충족시키고 용기를 북돋우기 때문에 분노가 없으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다. 하지만 반드시 그것을 지도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다만 동지로 삼아야 한다." 분노는 부당한 일과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이다. 하지만 분노는 용기와 폭력이라는 두 얼굴을 가진 위험한 에너지다. 이 힘을 공적이든 사적이든 생산적으로 쓰면 분노는 부당함을 이겨 내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기에, 발전의 동력이 된다.

반면에 분노가 복수를 위한 것이면 독을 품은 부정의 힘이 지배하고 우리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파멸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분노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깨달음이 시작한다고 말한다. 분노가 부당함에 대한 용기 또는 복수가 되는 것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다.

법조칼럼

타이거즈를 응원하며

김 종 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장검사

"타이거즈 지고 있지?" 식사 시간에 만난 동료는 내 표정만 봐도 프로야구 구단 타이거즈의 그날 성적을 알 수 있다며 웃는다. 부끄럽지만 사실이다. 타이거즈가 이기고 있을 때는 왠지 즐겁고, 그날은 보람있게 보낸 것 같고, 또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 반대로, 타이거즈가 진 날은 까닭없이 우울하고, 뭔가 나쁜 일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니 동료들은 내 표정만 봐도 그날 타이거즈의 성적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도대체 왜 그럴까? 필자는 타이거즈 구단이나 그 모기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말이다.

타이거즈는 필자가 중학교에 입학한 해인 1982년에 창단된 프로야구 구단으로, 창단 첫해에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김봉연 선수가 원년 홈런왕에 올랐고, 김성한 선수는 투타를 겸업하면서 10승 투수와 타점왕을 모두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지금까지 10회 우승해 최다 우승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일단 한국시리즈에 진출하기만 하면 한 번도 우승을 놓친 적이 없는 명문 구단이기도 하다.

한국프로야구 최초의 노히트 노런은 타이거즈의 방수원 선수가 1984년에 기록했고, 최초의 3타자 연속홈런은 타이거즈의 김준환·백인호·박철우 선수가 1989년에 기록했다. 이강철 선수의 10년 연속 10승 이상 승리투수와 이대진 선수의 10타자 연속 삼진은 한국 프로야구에서 깨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직업이 검사인 필자는 왜 이런 걸 알고 있는 걸까?

필자는 TV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지만 가끔 TV를 켜놓고 잠들었다가 드라마 대사를 들으며 잠에서 깨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TV 드라마에는 왜 그리 검사가 자주 등장하는지 의아스러울 때가 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많은 중요한 직업 중에 하필 검사가 TV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 중요한 것은 TV 드라마에 나오는 검사와 현실의 검사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외모부터…. 필자를 만나보면 바로 이해될 것이다.

최근들어 타이거즈는 팬들에게 많은 행복을 선사하고 있다. 꼭 팀순위에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끈기있게 최선을 다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집중력을 발휘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팬들을 감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통계상으로 보자면 6월초 현재 타이거즈의 팀타율은 2할8푼4리로 전체 4위지만 득점권 타율은 3할9리로 전체 1위이고, 특히 만루에서는 4할5푼5리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사이다' 같은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타이거즈가 이렇게 강해지기까지 선수들과 코칭스태프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냈을까. 특히 5월28일 경기에서 보여준 만 20세 최원준 선수의 연장 11회 끝내기 만루홈런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이고 극적이었다. 그날 최원준은 8번 타자로 출장했는데, 상대팀이 7번 타자 김선빈에게 고의사구를 내주며 최원준과 승부하는 작전을 펼쳐서, 4회·7회·9회·11회 등 그날만 총 4번의 2사 만루 상황을 맞이한다.

만 20세의 젊은 타자가 상대팀의 고의사구 작전에 따라 2사 만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서면 그 심정이 어땠을까? 특히 4회·7회·9회 2사 만루에서 모두 안타를 치지 못해 상대팀의 작전대로 경기가 흘러간 상황에서 연장 11회에 다시 2사 만루의 상황을 맞이했다면? 아마 필자라면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평소 실력조차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최원준 선수는 연장 11회 2사 만루에서 보란 듯이 만루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끝내버렸고, 상대의 고의사구 작전은 한마디로 '사람 잘못 본 작전'이 되고 말았다. 타이거즈 팬의 입장에서 그 만루홈런은 그 자체로 기적이고, 다시 경험하지 못할 카타르시스였다. 그날 타이거즈가, 그리고 최원준 선수가 팬들에게 선사한 기쁨의 가치를 과연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

필자가 속한 검찰은 요즘 국민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다. TV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만큼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기쁨은 커녕 스트레스만 안겨주는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한편으로는 검사 17년차 선배로서 이제 막 검찰에 들어온 젊은 후배들에게도 미안할 뿐이다.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스트레스가 아닌 기쁨을 드리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해보았다. 필자가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검찰인의 한사람으로서 내린 결론은 역시 검찰이 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가장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타이거즈처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검찰청을 찾은 단 한분이라도 만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 글을 쓰는 동안 버나디나 선수가 5회에 이어 6회에도 홈런을 쳤다. 타이거즈 팬이라서 참 행복하다.

기 고

돌아온 토하에서 본 겨자씨의 희망

현 의 송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영산강 지류인 영암군 학산면 망월천 최상류에 '광암'이라는 마을이 있다. 필자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일곱 살 때까지 살다가 인근 목포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 어머니는 방학 동안이나마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 애쓰셨는데, 아직도 잊히지 않는 것이 바로 토하젓이다.

이 토하가 꽤 오래전 망월천에서 사라져버려 두고두고 아쉬웠는데, 최근 들으니 요즘 다시 잡히고 있단다. 바로 유기농업 덕분이다. 망월천 상류 지역의 유기농업은 천해교회 박윤제 장로가 13ha의 논에서 유기농 쌀을 생산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지금은 광암·용산·샘바데 들과 용소리 들 등 모두 500ha에서 유기농 쌀을 생산해 생협 등의 유통 채널을 통해 전량 판매한다. 유기농업은 농가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망월천과 학산천의 수질 정화와 함께 일급수에서 사는 토하가 다시 돌아오는 기적을 가져온 것이다. 그 덕분에 매년 10월 말 토하축제가 열려 인근 도시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변화를 경험한 농민들은 더 열심히 유기농업으로 쌀을 생산하기로 의기투합했다. 스스로 유기농업과 관련해 사전 교육을 하고 선진지 견학길에도 올랐다. 특히 젊은 농민 박다니엘 씨는 인터넷을 검색해 충남 홍성군 문당리의 유기농업공동체 모범사례를 PPT 교육자료로 제작, 그곳으로 견학을 가는 두 시간 동안 버스 안에서 동료 농민들에게 자료화면을 보여주면서 사전교육을 하기도 했다.

'여행은 노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학문이며,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마음으로 문당리를 찾은 농민들은 주형로 선생으로부터 '문당리 지역농업발전 100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사전교육 덕분에 대부분의 농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들었다. 그런데 견학을 마치고 홍성에서 영암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의 분위기가 무거웠다. 이날 농민들은 평소와 달리 진지하기만 했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농민들은 10여 일 후 뒤풀이를 겸해 다시 모였다. 이 자리에는 박윤제 장로 내외와 그의 아들 다니엘, 20여 명의 농민 부부, 군청과 농협 직원, 필자 등 모두 30명가량이 참석했다. 토론에 나선 농민들에게서 길이 보이니 한번 해보자는 의욕이 뚜렷이 느껴졌고, 우리 고향 발전을 스스로 힘으로 성취해 보자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이미 경험에서 우러난 자신감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망월천과 학산천 일대 500ha나 되는 면적의 유기농업 정착, 수십 년 만에 돌아온 토하 등에서 자신들은 물론 후손들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망월천을 넘어 본류인 영산강도 살려보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영산강을 낀 전남은 전국 쌀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곡창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200만t이 넘는 쌀 재고량 때문에 영산강 유역에서 행해지는 관행적인 벼농사가 그다지 희망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마당에 생명을 중시하는 농업이 망월천과 학산천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비추어 겨자씨보다도 더 큰 희망의 싹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영산강 유역 광활한 들녘에 유기농업이 정착되면 영산강이 회복되고 팔뚝만한 숭어와 농어도 돌아오지 않겠는가. 더욱이 최근 영산강 관련 환경 시민단체들에 의한 영산강생태복원운동이 펼쳐지고 있어 전남도민들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영산강이 살아나고 마한과 백제의 전통에 기반한 이 일대의 문화가 다시 꽃피면, 영산강 유역은 전국 어디서나 부러워하는 축복받은 녹색의 땅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사실 유기농업을 통해 영산강 유역을 살리는 것은 1석3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남아도는 쌀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구환경 문제와 국민의 건강 문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 사람의 꿈은 그냥 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더 많은 농민이 함께 꿈꾸는 유기농업은 토하가 돌아온 망월천과 학산천을 넘어 숭어와 농어가 뛰노는 영산강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자그마한 겨자씨는 이미 뿌려졌다. 환경과 생명을 중시하는 우리 영암 농민들의 협동과 상생의 정신이 이 씨앗을 소중하게 가꾸어 창대하게 꽃피울 것임을 믿는다.

社 說

열사들 잠든 5·18 구묘역 기념비 하나 없다니

민주 열사들이 잠들어 있는 광주시 북구 망월동 5·18 구묘역이 기념비나 표지석 하나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원래 구묘역은 5·18 당시 희생자들이 묻혔던 곳이었으나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1997년 길 건너편에 신묘역이 조성돼 옮겨 가면서 이제는 5·18 이후 숨진 민주열사들만의 묘역으로 남게 됐다.

현재 구묘역에 잠들어 있는 열사들은 모두 42명이다. 1980년대 대표적인 저항 시인 김남주 씨부터 1987년 최루탄에 얼굴을 맞아 숨진 연세대생 이한열 군, 쌀값 보장을 촉구하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후 지난해 이곳으로 온 백남기 농민까지 면면이 다양하다. 이들 중에는 올해 5·18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일일이 호명한 노동자 표정두 씨, 서울대생 조성만 씨도 포함돼 있다.

42인의 민주 열사들은 5·18의 진상규명과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관철, 통일·노동운동 등 민주화를 위해 초개처럼 목숨을 바쳤다는 공통점이 있다. 5·18이 한국 현대 민주주의의 씨를 뿌렸다면 이들은 1987년 6월 항쟁의 단초를 제공했고 나아가 촛불 혁명으로 이어지는 디딤돌을 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런데도 열사들이 묻힌 구묘역을 찾는 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쓸쓸하게 방치되고 있다니 가슴 아픈 일이다. 방문객들을 위한 변변한 화장실도 없고 쉴 만한 벤치도 턱없이 부족하다니 그동안 우리들의 무관심이 얼마나 심했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무슨 일만 있으면 뻔질나게 5·18 묘역을 찾는 정치인들도 길 하나 건너편에 잠들어 있는 민주 열사들은 외면한 채 신묘역만 찾아 기자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고 떠나기 일쑤다. 지금이라도 광주시와 관계 기관은 열사들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다.

'참 나쁜 사람' 노태강의 화려한 부활을 보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주말 3차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이다. 박근혜 정부의 강압 인사로 30년 공직 생활을 끝낸 지 1년 만에 문체부 제2차관으로 발탁된 것이다.

신임 노 차관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혔던 인물이다. 당시 '비선 실세'로 통하던 최순실 씨는 전국승마대회에서 자신의 딸(정유라)이 우승하지 못하자 편파 판정 의혹을 제기했고, 문체부는 대통령 비서실의 지시를 받아 감사를 벌였다.

감사를 담당한 노 차관은 최 씨 측을 편들지 않고 문제가 파벌 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좌천되어 한직을 떠돌다 "이 사람이 아직도 있느냐"는 박 전 대통령의 거듭된 질책 탓에 결국 지난해 7월 옷을 벗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직을 제의했지만 거부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적임자라며 노 차관의 발탁 배경을 설명했으나 전 정권의 인사 전횡에 희생당한 것에 대한 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정권 교체의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다. 문체부 제2차관 자리는 바로 김종 차관이 있었던 자리다.

노 차관의 화려한 부활을 보며 격세지감(隔世之感)과 함께 세상만사 새옹지마(塞翁之馬)임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끼게 된다. 이와 관련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도 '참 나쁜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되는 것을 보며 세상이 바뀌었음을 실감한다고 밝혔다.

어찌 됐든 노 차관에게는 이제 공직자로서 본인의 역량을 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번 노 차관의 발탁을 보면서 모든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바른 처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無 等 鼓

부동산 투기

예금보다는 부동산 투자가 재산을 모으는 데 유리하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다 보니 돈 있는 사람은 물론 서민도 빚을 내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불법으로 개발 정보를 얻어 미리 땅을 사고, 심지어 '알박기'를 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사람들도 상당수다.

부동산 투기는 고려 말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목은 이색이 쓴 '측은재기'에는 "자리가 따뜻해지기 전에 집을 옮기고, 벽도 마르기 전에 주인이 바뀌는 수가 있다"는 대목이 보인다. 이로써 당시에도 부동산 열풍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부동산 투기는 조선 후기에 횡행한 것 같다. 조선 최고의 땅 투기꾼 하면 공주 출신 김갑순(1872~1960)이 꼽힌다. 공주 사람들이 서울에 가려면 그의 땅을 절반 정도는 밟고 가야 한다는 말이 전해 올 정도이다.

그가 공주·대전에 소유한 땅은 모두 1011만 평으로, 이중 대전 토지는 22만 평(1938년 기준)이었다고 한다. 당시 대전시 땅이 57만 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전 전체 토지의 약 40%가 그의 소유였던 셈이다.

그는 충남 지역 6개 군의 군수를 지낸 데다, 조선총독부 자문기구인 중추원 참의를 세 차례나 지낸 대표적 친일 인사다. 인맥과 권력을 이용해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거나 일제로부터 인·허가권을 얻는 방식으로 재산을 형성했다. 그의 재산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된 것은 1932년 대전 지역 유지들과 함께 충남 도청을 공주에서 대전으로 옮기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단돈 1~2전을 주고 산 땅이 하루아침에 100원 이상으로 뛰었다.

부동산 투기는 예나 지금이나 말썽이다. 국민 모두가 돈만 있으면 투기에 나서는데,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치고 투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고위 공직자 배제 원칙(부동산 투기)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가 알 수 있는 이유이다.

국민의 눈높이는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고위직 공직자만큼은 일반인보다 청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투기자를 배제하는 인사 원칙을 지켜서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채희종 사회2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제 부	220-0663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